

# 한민족 생활공간의 외연 확장과 성격 : 1920-30년대 우즈베키스탄 한인 조식을 중심으로\*

황 영 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hwangys00@hanmail.net)



## 국문요약

한인들은 1937년 강제이주 사건 이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 근거는 타슈켄트에서 1924년에 조직된 ‘한인연맹’과 1925년에 조직된 농업 아르텔 ‘일심’에서 찾을 수 있다. 투르케스탄 한인연맹은 2년간 지속되었고 조직원은 30여 명에 달했다. 지방 수준의 한인조직으로서 투르케스탄 한인연맹은 해당 지역 거주 한인들의 권익옹호와 문화수준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농업조합의 결성이었다. 즉 ‘일심’은 타슈켄트 지역에서 거주하던 한인들이 조직한 경제공동체였다. 이후 1931년 몇 개의 농업조합이 모여 하나의 콜호즈가 결성되었는데 이름은 ‘옥차브리’였다. ‘옥차브리’ 콜호즈는 1933년에 이름을 ‘폴리토젤’로 바꾸었다. 1924년에 타슈켄트에서 조직된 한인연맹과 이듬해에 조직된 일심 아르텔의 존재를 볼 때 한인들은 1937년 강제이주 사건 이전에 이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한인들의 거주 공간에 대한 시각은 역사적으로 보다 빠른 시기로 인식되어야 한다.

주제어: 일심. 소련한인연맹. 폴리토젤. 우즈베키스탄. 황만금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612)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러시아 혁명과 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신생 소비에트 정권은 1922년 말에 소비에트 연방국가를 출범시키고 국가 체제의 안정화에 집중했다.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러시아 극동 지방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었지만 연방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소규모로 다민족 국가의 일원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즉 1937년 소위 ‘강제이주 사건’ 전에 소련 전역에 한인들이 분포되어 있었고 중앙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도시로서 공산당 조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 직후 혼란기에 수립된 투르케스탄 자치공화국(1918-1924)의 중심 도시로서도 기능했다. 이때 볼셰비키 혁명 조직의 지역 지도부에 일부 한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타슈켄트 지역에 1920년대 초에 이미 한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련 최초로 전국적인 인구조사가 실시된 1926년 기준으로 총36명(여성 2명 포함)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23명은 타슈켄트에, 10명은 타슈켄트 주에, 1명은 부하라, 2명은 수르한다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1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는 모국어 구사할 수 있었고, 2명의 남자는 러시아어 모국어 구사자였다(김 II. 1993, 9).

구체적인 조직으로는 소련 전국적으로 구성된 ‘한인연맹’ 타슈켄트 지부가 1924년에 결성되었고, 이듬해는 지부 회원 중 일부가 농업조합을 구성하여 벼농사를 비롯한 활동을 했던 것이다.

이 조합이 바로 타슈켄트 주의 ‘일심’ 아르텔 즉, 농업조합이다. 일심은 훗날 ‘폴리토젤’ 콜호즈로 재편되고, 강제이주된 한인들이 합류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농업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 일심 농업조합을 통하여 한인들은 우즈벡 민족과 함께 농업 활동을 개시했다. 폴리토젤 콜호즈는 다민족 콜호즈였지만 한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훗날 폴리토젤 콜호즈는 비단 우즈벡 공화국 차원이 아니라 소련 전체적인 차원에서 선진적인 콜호즈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폴리토젤 이전에 형성되었던 일심 농업조합은 강제이주 이전에 한인들이 이미 우즈벡 공화국에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1937년 강제이주 이전에 이미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료에 입각한 분석을 단행하고자 하는데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1920년대 소련 및 중앙아시아의 정치 상황과 한인사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인연맹 타쉬켄트 지부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 그리고 4장에서는 농업조합 ‘일심’ 아르텔의 결성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결론을 내하고자 한다. 시간적인 범위는 1920년대 초부터 1937년 강제이주 이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강제이주 이전에도 한인들이 이미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었음을 직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2. 기존연구 검토

본 연구의 핵심은 ‘한인연맹’ 타쉬켄트 지부와 ‘일심’ 아르텔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논문은 없지만 연구단행본의 일부에서 그 내용이 다루어지고는 있다. 그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자료는 『러시아한인 민족사회단체의 독립 및 자치운동 -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GARF) 소장 문서군(F. 8356) 자료를 중심으로 본 문헌집』(심현용 2013)<sup>1)</sup>으로서 두 주제에 대한 문서를 직접해제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고문서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동 단행본은 이번 논문 작성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 사료를 바탕으로 논문이 진행되었다.

또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변호사가 사료를 발굴하여 한국에 번역 소개한 『러시아한인 강제 이주사』(김 블라지미르 2000)<sup>2)</sup>인데 동 번역서에는 ‘한인연맹’에 관한 문서 내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 저서에서는 문서의 고유번호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사료 조사에 한계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자인 한 발레리(Хан Валерий Сергеевич)의 *Историография корейце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и этапы развития* (중앙아시아 한인에 관한 역사문헌 연구: 기본적인 방향 및 변화단계) 저서에서도 본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의 시기적 변화가 매우 넓어서 1920~30년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학자인 김 표트르(Ким Пётр Геронович)의 저서 *Корейцы ру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한인들

1) 본 연구는 동 저서에 수록된 관련 문서(Ф. 8356)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했다.

2) 이 저서에서는 한인 이름의 한글 번역명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위 저서에서는 당시 한국어로 표기된 문서가 소개되어 있어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임윤여를 임윤애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에 해당한다.

- 역사와 현재)는 1937년 강제이주 전후의 한인사회의 형성에 관해 문서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우즈베키스탄 한인이주에 대해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폴리토젤 콜호즈 회장을 1953년부터 32년간 역임한 황만금의 저서<sup>3)</sup>는 주로 소련 시기의 폴리토젤 콜호즈의 발전상이 주류이기는 하지만 초기 역사적 형성에 관한 부분도 조명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언론인인 김 브루트(김 브루트 Инокентьевич)와 김 미하일(김 미하일 Романович)은 황만금의 업적을 다양한 자료와 구술을 활용하여 단행본 『황만금 - 올림포스와 골고다를 넘어서』를 출간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황만금 주변인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수록한 점이 특이하다. 본 연구는 강제이주 이전의 폴리토젤 콜호즈에 관한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폴리토젤 콜호즈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간주했다.

## II. 1920년대 소련 및 중앙아시아 정치 상황과 한인 사회

### 1. 정치사회적 배경

볼셰비키 혁명 직후 전개된 내전이 1921년이 되면 러시아 극동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신생 소비에트 정부가 승리하게 되면서 새로운 체제 수립과 함께 정치 안정 및 경제개발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현재와는 다른 정치행정적 경계선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투르케스탄(혹은 투르키스탄) 지역과 카자흐 스텝 지역으로 대별되었다.<sup>4)</sup> ‘투르케스탄’이라는 명칭은 이미 제정러시아 시기에 사용된 것이었지만 1920년대 전반기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관련 문서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의 명칭보다 투르케스탄 명칭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중앙아시아 지역은 신생 소비에트 국가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 쪽에서 볼 때 바스마치(Басмач: 강도) 집단으로 칭하는 반소비에트 세력들의 활동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3) 황만금 회장이 직접 쓴 3권의 저서가 있다. Хван Ман Гым(1977); Колхоз шагает в коммунизм(1961); Трудом, и только трудом(М. 1962).

4) 구체적으로 진행된 법적, 행정적 절차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황영삼(2015, 495-542).

및 투르크메니스탄 등지에서 반소비에트 무장 활동을 하던 이들은 신생 정부에 반대하고 신생 터키 공화국 등 투르크 민족의 국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그 세력을 확대시켰다.<sup>5)</sup> 하지만 점차적으로 1920년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활동은 거의 위축되고 1930년대 초에는 소멸되었다.

1922년 12월 30일에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결성될 때 중앙아시아 전역은 러시아 공화국 소속의 행정구역으로서 편제되어 있었다.<sup>6)</sup> 이 지역은 주요 민족이 비러시아인들이며 무슬림들의 거주 지역인 관계로 신생 정부에서는 정부에 협력할 정치 엘리트들을 양성하고 이념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다. 즉 토착 민족엘리트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신생 정부의 실세 권력기관인 볼셰비키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토착 엘리트들이 연방을 유지하는데 협조적인가 아니면 비협조적인가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에 투철한가 하는 문제였다.<sup>7)</sup>

초기 소련에서는 지역 민족의 자치와 독립성에 대해 우호적이었는데 이는 레닌의 민족정책의 기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공화국 내에서는 이미 자치공화국<sup>8)</sup>이 수립되었고, 이러한 지역 민족의 자치적 움직임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우즈벡 엘리트인 파이즐라 호자예프(Файзулла Губайдуллаевич Ходжаев: 1896-1938)는 제정러시아 시대의 히바 칸국, 부하라 에미르국 등을 모두 통합하는 거대한 중앙아시아 지역 공화국의 설정을

---

5)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장군이던 엔베르 파샤(Enver Pasha: 1881-1922)는 교묘하게 부하라 지역으로 입국한 후 바스마치 세력을 규합하여 범-투르크주의(Pan-Turkism)를 강조하면서 활동한 바 있다.

6) 소비에트 연방(СССР: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구성 공화국은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카프카즈 등 4개국이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모두 러시아 공화국 속에 편제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러시아 공화국의 정식명칭은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러시아 공화국(Российская Советская Федеративн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임을 밝혀둔다. 현대의 러시아 연방(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과 명칭상 차이가 있다.

7) 이 지역의 자치정부 노력은 이미 우즈베크인들의 코칸드 자치정부(1917.11 - 1918.2), 카자흐인들의 알라쉬 오르다 정부(1917.12 - 1920.8), 투르크멘인의 경우는 주나이드-칸의 활동(1918.3 - 1920.2) 등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움직임은 모두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진압되었다. 볼셰비키 지도부는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동시에 토착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는 '토착화(коренизация) 정책'을 구사했다.

8) 바쉬키르 자치공화국(1920년 5월), 타타르 자치공화국(1920년 5월), 키르기즈(카자흐) 자치공화국(1920년 7월), 다게스탄 자치공화국(1921년 1월), 크림 자치공화국(1921년 10월) 등을 들 수 있는데 러시아공화국에만 모두 10개 자치공화국이 생성되었고 소련 전체적으로는 15개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Г.Н. Ким и др. 2020, 12).

위해 움직였는데 이는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투르크멘 공화국과 우즈베크 공화국이 따로 설정되고 카자흐 공화국 지역도 러시아 공화국의 자치공화국 수준으로 편성되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후 1936년 스탈린 헌법으로 명문화할 때까지 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은 점진적으로 5개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이행되었다. 1924년에 우즈베크(소비에트) 공화국과 투르크멘 공화국이 설정되었고, 1929년에 타지 공화국, 그리고 1936년에 카자흐 및 키르기즈 공화국이 소련의 구성공화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9)</sup> 그리고 도시명 투르크에스탄이 존재하지만 지역을 지칭하는 투르크에스탄은 1920년대 말까지 정부의 공식 문서나 일상 대화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즉 ‘투르크에스탄 한인협회’ 등의 표현이 쉽게 발견된다.

신생 소비에트 정부는 체제의 유지 및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고, 내전 시기에 적용했던 전시공산주의를 폐기했다. 이른바 레닌의 신경제정책(NEP)이 1921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에서 후퇴하는 것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이었다. 즉 혁명 세력이 표방하던 이념과는 달리 개인의 사적 이윤추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사적 조합이 결성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즉 콤무나(коммуна, 콤문), 아르텔(артель), 토즈(ТОЗ: Товарищество по совместной обработке земли) 등의 형태가 있었고 순서대로 사회주의적 공동체 성격이 강했다.<sup>10)</sup> 콤문형은 생산수단 및 분배의 공동화라는 점에서 가장 공산주의 이상과 근접했다. 양적 측면에서 아르텔이 가장 많았고, 세 유형은 1928년에 실시된 농업집단지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후 점차적으로 폐지되었다.

우즈베크에스탄 타쉬켄트 주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1925년에 결성한 ‘일심’ 조합도 아르텔 형태였다. 문서에 의하면 후술할 타쉬켄트 지역<sup>11)</sup>의 한인들이 영농조합 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나타난 것이었는데, 이는 산발적인 한인 거주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룬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농업활동을 한 것이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한인들의 거주 영역으로 만든

9) 우즈베크 공화국 설립은 1924년 10월 27일자이나 소비에트 구성 등 구체적인 공화국 조직 등은 1925년에 가서야 실행된다.

10) 콤무나(콤문)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방식이고, 아르텔은 공동 출자 및 생산을 통한 협동조합으로서 러시아 혁명 이전부터 존재했고, 토즈는 생산도구와 장비는 개인 소유, 토지는 공유로 하는 체제이다.

11) 1925년 초 정부문서에는 투르크에스탄 지역(크라이)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아직은 우즈베크 공화국 명칭은 개시되지 않았다. 1924년 10월에 명칭은 만들어졌지만 이듬해에 최고 소비에트 회의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이다(심헌용 2013, 223-224).

것이라고 평가된다. 물론 이것은 1937년 대규모 한인들의 강제이주가 발생한 이전의 일이다.

## 2. 소비에트 한인연맹의 등장과 소멸

제정러시아 시기인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땅에 삶을 개척한 한인들은 러시아 혁명과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소비에트 체제에 적응해야만 했다. 흔히 연해주로 알려진 지역은 조선 및 대한제국을 등지고 완전 정착을 위해 모여든 이주 한인들의 고향이다. 경제적 자원으로 작동하는 슬라브계 인구가 부족한 탓인지 러시아 당국은 한인들의 정착을 쉽게 허용하고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기도 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자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한 애국지사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모여들기도 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자료를 보면 한인들의 거주 지역은 극동 러시아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유럽 러시아 지방이나 중앙아시아 지방에서도 이미 파악되었다(황영삼 2010, 25). 이것은 소위 1937년의 ‘강제이주’ 사건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한인들의 자발적 이주에 해당한다. 즉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극동 러시아 지방에서 다시 유라시아 대륙을 무대로 떠났던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관련 학계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향후 많은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과제에 속한다. 극동 러시아 지방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유럽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유와 과정에 관한 것이다.<sup>12)</sup>

러시아 혁명 직후 내전 시기에 한인들이 볼셰비키 정권을 지지하여 새롭게 바뀐 정치적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극동 지역의 내전은 1922년에 종식되었는데 그해 11월에 일본군마저 러시아령에서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소비에트 정권의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들의 소비에트 정권에 협력했고 나아가 적위군의 일부로서 참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내전의 종식과 일본군 축출에 기여한 한인들은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sup>13)</sup>

12) 가장 유력한 추정은 시베리아 철도부설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본다.

13) 물론 한명세(885-1937)가 주장한 극동 지역 한인들의 자치주 설립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273> (검색일: 2024.01.10.)

‘소련한인(고려인)연맹(Союз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혹은 ‘소련한인(고려인)노동자연맹(Союз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인지 명칭 사용 여부를 두고 소비에트 당국과 마찰을 빚긴 했지만 결국 전자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소련의 한인들은 민족의 자치를 추구하고 있던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서 조직화를 시도해 나갔다(박 보리스 외 2004, 180).

소비에트 당국은 1924년 6월에 소비에트 한인들에게 자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직의 정관 등록을 접수했고, 동년 7월에 소련 인민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전국적 조직인 한인연맹의 중심은 수도에 위치한 모스크바 한인연맹이었고, 지방에 위치한 지부는 1925년 기준으로 25개로 파악되었다.<sup>14)</sup>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소련 한인연맹 현황(1925년 7월 15일자)

공화국 (갯수)	도시 및 주
러시아 (21)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무르만스크, 카잔, 페름, 스베르들롭스크, 튜멘, 토볼스크, 야쿠츠크 주, 야쿠츠크 시, 미누신스크, 톰스크, 쿠르간, 옴스크, 베르흐네-우진스크, 모고차, 노보-니콜라옌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칸스크, 이르쿠츠크, 아무르 주
우크라이나 (3)	키예프, 하리코프, 도네츠크(돈바스)
중앙아시아 (1)	타슈켄트

출처) Сон Жанна, “Советск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от добровольной д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играции (1920 - 1938),” С. 4.

[<https://publications.hse.ru/pubs/share/folder/7vcfpqec1a/69707370.pdf>]에서 재정리.

위 도표<sup>15)</sup>에서 나타나듯이 한인들은 1920년대에 이미 소련 각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러시아 공화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공화국에도 3개 도시에 공동체가 있었고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타슈켄트 지역에 한인들의 조직이 있었다.

14) 심헌용(2013)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인연맹이 총 52개로까지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입증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15) 손 잔나의 정리는 다음의 부가이-심헌용 공동 저서에서 원용한 것임(Бугай и др. 2004, 208-209).

한인들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인 극동 지역의 경우 아무르 주(블라고베웬스크)를 제외하고 연해주 지역에는 결성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자치 조직의 민족 대표성 문제에서 약점으로 꼽힌다. 대신 그 이전부터 부단히 요청하던 포시에트 지역의 한인자치주 설립 요구가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보아 소련 당국이 극동 지역의 한인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련한인연맹은 형식적 차원의 자치조직이었고 한인들은 소비에트 당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결국 1926년이 되면 이렇게 결성되었던 한인연맹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소련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1926년 9월 29일에 우즈베크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는 한인연맹을 공식적으로 해체해 버렸다(Хан В. С. и др. 2014, 64). 따라서 소련한인연맹은 2년간의 단기간에 걸쳐 활동했기 때문에 그 업적은 미미하지만 중요한 점은 1937년 소위 강제이주 사건 이전에 한인들이 소련 전역에 걸쳐 삶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 Ⅲ. 한인연맹 타슈켄트 지부의 설립과 활동

소련한인연맹은 1924년 중반부터 주요 도시마다 조직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타슈켄트에서 1924년 7월과 8월에 걸쳐 결성되었는데, 이 시기는 투르크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우즈베크 공화국, 투르크멘 공화국 등 분리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였다. 즉 중앙아시아 지역의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던 때로서 중앙 및 지방의 주요 엘리트들이 참여한 이해관계를 노출하고 있었다. 이때 한인들도 자치조직을 결성하고 나섰다.

지방 수준의 한인협회로서 투르크스탄 한인협회는 해당 지역 거주 한인들의 권익옹호와 문화수준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되었고 이는 러시아공화국 인민위원회에서 1924년 6월 19일 문서로 확정되고, 동년 8월 26일의 문서에서 등록이 확인되었다(김 블라지미르 2000, 28-29).

투르크스탄 한인연맹의 대표인 임윤여(Им Юнио Егреневич, 林允汝)의 보고에 의하면 연맹은 1924년 8월 15일에 러시아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타슈켄트 도시를 중심으로 한인들의 자치적인 조직이 승인되었다. 8월 15일에는 27명이었지만

9월에 1명, 11월에 2명 그리고 1925년 1월에 1명, 2월에 2명이 추가 가입하여 모두 33명이 되었다. 총회는 매달 1회 개최되었는데 매월 1일이 지난 첫 공휴일에 열렸다(심현용 2013, 226).<sup>16)</sup>

한인연맹의 사무실은 타쉬켄트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표르나야(Сапёрная) 거리 39번 지이며 당시 한인들이 일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기도 했다.<sup>17)</sup> 현재 도로명은 미라바드(Mирабад)이며 근처에 미라바드 대형 재래시장이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이곳은 러시아혁명 이후 개발되기 시작한 신도시 지역에 해당하며 초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대에 위치한 구도심과는 거리가 있고 인근에 타쉬켄트 기차역이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 타쉬켄트는 제정러시아 시기에 투르케스탄 총독부령의 핵심 도시였으며 러시아혁명기에 등장한 투르케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로서 발전하고 있었다. 1922년부터 2년간에 걸쳐 도시의 귀속 문제에 관하여 소련 당국의 지도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1924년 10월에 결정되는 우즈베크 공화국(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귀속되느냐 하는 문제였다.<sup>18)</sup> 마침내 같은 해에 타쉬켄트는 우즈베크 공화국의 도시로 편성되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초반에는 도시의 법적 지위부터 시작하여 매우 복잡한 혼란기에 해당되었고 1930년이 되어서야 우즈베크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한인들이 타쉬켄트에서 거주하면서 자체적인 조직을 갖추었던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변호사이자 한인이주에 관심이 많아 일찍이 한인연맹의 문서를 발굴하여 소개한 김 블라지미르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인협회의 목적은 동포들의 권익보호와 문화수준 향상, 공제기구 설립, 주일 및 야간학교, 클럽 및 도서관 설립, 한국어 신문 잡지 발행,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건설 등이다.

16) 연맹 결성일에 가입된 회원의 수는 김 블라지미르의 주장(28명)과 상이하다. 김 블라지미르가 인용한 문서는 1924년 7월 30일자이고, 대표인 임윤여가 기록한 때는 연맹이 활동한 1년후인 1925년 8월 31일자이다. 누군가 처음에 가입하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정으로 1명이 빠진 것으로 추정한다.

17) 블라디미르 김의 저서에 보면 일부 한인들의 거주지 주소가 나와 있다. 사표르나야 39번지 및 인근의 마린스카야 7번지가 소개되어 있다. 블라디미르 김, 26-27쪽의 도표 참고. 그리고 이 일대 즉 현재의 미라바드 거리는 전통적으로 한인(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 입국한 사업가 및 유학생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8) 역사적으로 타쉬켄트는 카자흐 칸국의 도시로서 1598년부터 1732년까지 존속했는데 그만큼 카자흐인들의 영역으로도 주장될 정도였다.

1924년 7월 30일 4명의 창설자는 협회 창설을 발표했다. 당시 28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김 블라지미르 2000, 19)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1937년 강제이주 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농업협동조합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실현되었고, 1925년에 결성된 ‘일심’ 아르텔이 바로 그것이었다. 셋째 실행은 안되었지만 한국어로 된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고 학교를 세우려고 했다는 점 등인데 이는 이미 극동 지역에서는 실행되고 있었다.<sup>19)</sup>

당시 문서에 나타난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규모는 회원이 36명, 그들의 배우자(아내) 22명 및 자식이 11명 등 총 69명이었다(심현용 2013, 226).<sup>20)</sup> 타쉬켄트 조직의 대표는 임윤여가 맡았고(심현용 2013, 222),<sup>21)</sup> 임윤길, 장봉삼, 공수진 등이 창설자(김 블라지미르 2000, 26)<sup>22)</sup>이다. 1925년 1월 2일에 개최된 ‘한인연맹의 투르케스탄 집행위원회(Исполком Туркестанск. Краев. Союз корейцев)’에는 총 21명이 참석하여 정식회장 겸 외교 담당에 임윤여, 서기에 김창순으로 결정했다(심현용 2013, 223-224).

초기 가입자 28명의 면면은 투르케스탄 공산당원을 비롯하여 의사, 건널목지기, 철도 역무원, 정원사 등 다양했고 무직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스스로 직업을 밝히지 않아 구체적 현황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공산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한인연맹이 결성될 때 전국적인 지부 결성의 조건은 한인 50명 이상이 거주하면 가능한 것(심현용 2013, 162)<sup>23)</sup>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업 및 신분은 구성 요건이 아니었다.<sup>24)</sup> 타쉬켄트의 경우에도 조직 구성원과 그 가족을 감안하면 충분한 요건이

19) 다만 조직원 인원수에 차이(27명과 28명)이 있는 것은 7월의 결성일과 8월의 승인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김 블라지미르는 결성일의 28명에 주목했다. 극동에서는 한국어로 운영되는 학교가 설립되었고, 순 한국어 신문인 <선봉>이 1923년에 발간되었다.

20) 주의할 점은 한인연맹이 결성된 1924년부터 해산되는 1926년까지 연맹 회원의 숫자가 자주 변동된다는 것이다.

21)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윤여 이름이 김 블라지미르의 저서(김현택 역)에서는 임윤애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로 된 다른 문서에 나타나 있듯이 임윤여가 정확한 표기이다. 그리고 남성임을 러시아어 표기에서 알 수 있다.

22) 여기에 28명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23) 문서에 의하면 “... 노령 각지에 거주하던 한인은 五十人 이상만 거주하면 지방회를 조직하란 章程이 有하니...”라고 한글 및 한자로 되어 있다.

24) 대표인 임윤여는 의사였고 비공산당원이었다.

되었다. 당시 소련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에 대한 정확한 인구 통계는 1926년에 가서야 이루어지는데,<sup>25)</sup> 그해에 한인연맹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내무인민부의 결정으로 폐지되었다.<sup>26)</sup>

한인연맹의 대표 임운여의 기록에 따르면 “1924년 8월 15일에 연맹이 결성된 바로 그날에 타쉬켄트 거주 한인들은 인접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모든 한인들이 연합해야 하는 것을 절감했다. 왜냐하면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언어와 문화, 관습 등이 자신들과 판이하게 다른 이질적인 곳이었기 때문이다.”(심현용 2013, 227)라고 했다. 당시에는 지역 명칭이 ‘투르크스탄 크라이(지방)’로 유지되었지만 이듬해부터 우즈베크 공화국 등 소비에트 공화국이 결성됨에 따라 ‘투르크스탄’보다는 중앙아시아(엄밀히는 ‘스레드냐야 아지야 및 카자흐스탄(Средняя Азия и Казахстан)’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심현용 2013, 227).

사실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자치모임은 1910년에 치타에서 조직되었다(심현용 2013, 229). 이것은 제정러시아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1905년 제정러시아의 입헌군주제 채택 및 사회적 개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고, 조국인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이 된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한인노동자연맹의 형태로 전국을 무대로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은 모스크바였고(심현용 2013, 229) 이 점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다.

1925년을 비롯하여 이후 스탈린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여 농업집단지화 정책이 실시될 때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은 현지 토착 민족들의 엘리트들이 공화국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즉 우즈베크 공화국 영역에서는 우즈베크인들이 투르크멘 공화국 영역에서는 투르크멘인들이 당과 정부의 요직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소수 민족에 속하는 한인은 한인연맹을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소련의 극동 지방에서 한인들은 이미 문화적 자치를 누리고 한국어로 운영되는 학교와 한글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등을 보유했지만, 투르크스탄 한인연맹은 2년 정도의 단기간 활동에 머물렀다. 그 이유는 비교적 작은 조직 규모와 짧은 거주역사성과도 무관하지 않았지만 소련 당국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인연맹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아야

25) 연구서에 의하면 1926년 전국인구조사에서 우즈베크 공화국에서 파악된 한인은 총 30명(남 29명, 여 1명)이고 그 중에서 타쉬켄트에는 17명이었다(Г.Н. Ким и др. 2020, 20). 이는 한인연맹 명부에서 파악되는 것과 차이가 난다. 가입했다가 다른 도시로 이주했는지 한 것으로 판단된다.

26) 해체될 때 조직구성원은 모두 33명이었고 그 명단은 관련 부서에 제출되었는데 명단은 다음 저서에 번역되어 있다(김 블라지미르 2000, 29-31).

할 것이다. 하지만 초기 투르케스탄 연맹 계획 자체는 극동 지역의 한인연맹 사회 못지않게 자치 활동을 추구하는 차원의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는 있었다.

한인연맹의 규약에 따르면 운영 자금은 회원의 회비를 비롯하여, 특별 기부금, 특별 회비, 연맹 산하의 영업단체에서 납부하는 자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김 블라지미르 2000, 25-26). 이것을 볼 때 연맹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재정을 전부 충당해야 하는 자치적인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졌다.

투르케스탄 한인연맹은 산하에 영농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농지를 임차하고 관련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

“투르케스탄 영지 내에 금일 처음 조직된 우리 고려인회는 모든 노력의 성심을 다하여 우리 고려혁명에 선봉되기를 생각하노라. (중략) 따쓰겐뜨 고려인사회를 특별 보호하기 위하여 농장/수답과 과본적 72일경을 영구 조차 허가를 받되 12년을 기한하고 계약서를 꾸미고 기한이 되면 또다시 기한을 정할 뿐이다...”(심헌용 2013, 187-188)<sup>27)</sup>

위 문서는 1924년 10월에 작성된 투르케스탄 한인연맹 집행부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한 내용이다. 일단 12년 임차 농지 72 ha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이듬해에 결실을 보게 된다. 또 문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인’이라는 용어보다는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이 무렵 소련 전체적으로 ‘고려인’ 용어가 확산되고 있었는데(물론 한국어 표기일 때), 타쉬켄트 한인연맹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었다.

전술했듯이 타쉬켄트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은 자체적으로 영리활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다. 특히 혁명과 내전으로 인한 피폐해진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식량증산을 위한 정책이 중시되었다. 우즈베크인들이 면화 생산에 특화하고 노동을 투입한 반면 그러한 기술이 결여한 한인들은 벼농사 및 채소 재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인연맹의 회원 중 일부는 이듬해에 본격적인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고 경작지를 찾고 있었다. 당시 타쉬켄트와 지금의 타쉬켄트 영역은 크게 다른데 남부 및 남동부 지역에 치르칙 강 등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 벼농사

27) 따쓰겐트 지방통상회 제2회 보고, 1924년 10월 15일자. 이 문서에는 ‘한인’ 대신 ‘고려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소련 한인들 사이에서 고려인, 고려민족, 고려농민 등의 용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극동에서 1923년에 창간된 <선봉> 신문에서도 발견된다.

재배를 위한 장소로 채택되었다.

## IV. 농업조합 ‘일심’ 아르텔의 결성과 활동

### 1. 조직의 결성과 활동

일심 농업조합이 결성된 것은 앞서 조직된 투르케스탄 한인협회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다음 문서는 1925년 1월 3일자 타쉬켄트 지역의 한인들이 모스크바 한인협회에 보낸 서신에서 자신들이 조직한 협회의 정강에 따라 농업조합을 결성하기로 한 내용이다.

“현재 농원 13인을 단체적 공동영업으로 모집하여 농장회사 조직 ... 명칭은 Корейская трудовая земледельская артель “Ильсим” 입회금 每人 一元式 固本금은 每人 十元式 章程 規則 청원서와 회원의 결성서를 제출. 지방중앙농지상업회사에 교섭중이나 안축 미상이요, 설혹 됐다 할지라도 항상 확실치 못할 배라. 근본 톨게스탄 영지내 스런니아시아 합동 무슬우만 정부가 현금은 각기 민족정부를 조직됨에 이 영지내에 五個 민족정부가 분정되야...” (심헌용 2013, 223-224)<sup>28)</sup>

이 서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타쉬켄트 지역에서 조직된 농업조합의 이름은 ‘일심(一心)’이었고 조합형태는 ‘아르텔’이었다. 그리고 투르케스탄 영역 내에서 무슬림 정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입회금이 1인당 1원(루블)이고 자본금(고본금)은 1인당 10원(루블)이라는 것도 표시되었다.<sup>29)</sup> 개인 입회비와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농업집단화 정책 이전의 제도여서 아르텔 조직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이 확보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생산수단과 분배가 공평한 콤포트 형태의 농업조직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사적 이익의 추구가

28) 일경은 고려-조선 시기에 함경도 등지에서 민간인들이 사용하던 면적 단위로서 밭 경작지에 많이 사용했다. 논은 경운이 마지기 단위가 있다. 하루에 밭을 갈 수 있는(경작할 수 있는) 크기로서 대략 2,400평 정도인데 109 일경을 임차했으니 그 크기는 어림잡아 30만평에 달한다.

29) 1924년 당시 소련은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내전으로 인한 초인플레이션을 진압했다. 이때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는 등 경제적 전환기에 있었다. 환율은 1달러에 약 2.2 루블이었고 이듬해에는 1달러에 1.94 루블을 기록했고 이후 1934년까지 비슷한 환율을 유지했다. 참고로 1925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인들이 발간한 〈선봉〉 신문의 연간 구독료는 3원(3루블)으로 광고되었다. 광고는 1925년 5월 7일자 〈선봉〉 신문 제73호, 1면을 참고.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 조직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사적 모임이고 조합이었는데 192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확산된 농촌 공동체였다.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일심 아르텔은 공식적으로 1925년에 설립되었다. 초대 회장은 김 니콜라이(Ким Николай)였고 아르텔 담당 공산당 제1서기는 김석범(Ким Сек Пом)이었다(Хан, Валерий Сергеевич 2021, 104). 특히 구성원 중에는 ‘경조(К ёндё)’ 법씨 품종으로 유명한 박경조(Пак Кён Дё) 전문가도 있었다.<sup>30)</sup> 강제이주 후인 1938년부터 2년간 폴리토젤 콜호즈의 제19번 학교(쉬콜라)에서 교사로 근무한 장영진의 회고에 의하면 일심 아르텔 구성원들 중에는 소련 각지의 금광에서 일하던 한인들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인과 결혼을 하여 생활하고 있었다(김 브루트 외 2015, 46).

아르텔 입차 농지의 크기는 대략 30만평에 달하고 거주민은 초기에 13가구에 불과했다. 이 규모는 상대적으로 한인들의 거주가 많았던 극동 지역에 비해 작은 규모였지만 한인 거주인구 면에서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훗날 폴리토젤 콜호즈의 회장으로 소련에서 명성이 높은 황만금(1919-1997)<sup>31)</sup>의 기억을 읊긴 저서에 의하면 설립일은 1925년 4월 11일이며 당시 지리적 환경은 다음과 같다.

“일심은 치르치크강 인근에 위치했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치빈테파(모기 언덕)’의 일부를 차지했다. 이곳에는 다른 소규모 집단농장들도 있었다. 치빈테파 인근 지역은 완전히 야생지대였는데 밤마다 자칼의 울부짖음이 들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고, 모기 등 각종 해충이 무수히 많았다. 주택 근처에는 거북, 도마뱀뿐 아니라 맹독을 지닌 독사, 전달도 기어 다녔다. 간혹 열대 말라리아가 창궐하기도 했다.”  
(김 브루트 외 2015, 36)

위 내용으로 볼 때 일심 아르텔이 조직되었던 농지<sup>32)</sup>는 그야말로 강변의 야생상태 그대로였고 한인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30) <https://ok.ru/koreanok/topic/62568580595751> (검색일: 2023.12.20.)

31) 황만금의 출생년도는 공식문서에는 1921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의 자식과 형제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하면 1919년생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도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와 실제 출생년도가 다른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보아 1919년이 더 신빙성이 있다.

32) 당시 이 지역의 행정구역명은 타쉬켄트주 젤랄-튜베군(Джела-Тюбинская волость Ташкентского уезда)이다.

거의 불모지를 농지로 개척해야만 했던 것으로서 명확한 사명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토지는 국가로부터 임차되어 사용하는 시스템이었다.<sup>33)</sup> 1925년 8월 7일의 회의록에 의하면 임차 토지의 크기와 예산이 명시되었다.

… 작년 8월 15일 조직되어 현재 회원 40여인에 달함 … 본 지방 고려인회는 혁명운동에 현금과 장래 생활적 방침을 위하여 營商工部에 교섭한 결과에 토지 109日耕을 借得하고 영무은행에 교섭하여 영비 2천원을 借用하고 그 외에도 타인 차용이 四百 여원이라.(심현용 2013, 225-226)

109 일경은 러시아어로 된 별도의 문서(심현용 2013, 227)<sup>34)</sup>에서는 109 데샤티나(десятина)로 나오는데 이는 109 ha 정도로 환산되고 약 30만 평에 달한다. 토지는 확보했지만 벼와 콩 등 작물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했고, 동시에 경영 비용으로 2천 루블도 차입하는데 성공했지만 향후 재정 지원은 더 필요한 상태였다(심현용 2013, 228).

이로써 타슈켄트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은 자체적인 농업조합을 결성하고 벼와 콩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 작물이 면화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벼 재배 기술을 가진 민족은 거의 부재했고 재배 여건 또한 한인들이 개척해야 했다.

1925년 12월 31일자 농작 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진행되었던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이를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금년(1925년) 경작지는 총 9 ha 정도인데 논(水營) 8 ha는 (상기) 타잡종류로, 그리고 1 ha에는 시험 경작지로 목화, 남초, 옥수수, 감자, 수박, 참외, 물외, 다두매채, 보민돌,

33) 아르텔 대표 임윤여의 보고서에 의하면 토지는 국가토지인민위원회(Наркомзем)으로부터 12년간 임차하기로 했다(심현용 2013, 227).

34) 한편 한국식 개념(일경의 크기)으로 볼 때 임차 농지의 크기는 약 30만 평에 달하며 위치는 현재 타슈켄트 주에 위치한 두스틀릭(Дустлик) 농장(과거 폴리토젤 콜호즈) 중심부이다. 이곳은 인근에 치르치강이 흐르고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서 농작물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참고로 극동 지역의 어느 농촌에서는 1,500 일경(ha)의 토지를 얻어서 경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주민 또한 67가구가 새로 이주했다고 한다. <선봉> 제73호 (1925.5.8.), 4면.

파, 마늘, 청무, 호박 등이고, 시험결과는 중간 정도 성공이었다. 논에 대해서는 겨우 4 ha쯤 거름메고 나머지 4 ha쯤은 손대지도 못했다. 거름엔 논에서는 1 ha에 50푸드(1푸드 = 16.38kg, 50푸드는 약 0.8톤) 정도의 벼가 수확되었다. 거름엔 논이 벼는 1푸드당 백미 25근(약 15kg)쯤 되는데 거름 안엔 논에서는 18근(11kg) 정도 되었다.(심헌용 2013, 230)

당시 한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 현대어로 재작성한 내용인데 이를 통하여 ‘일심’ 농업조합은 벼를 비롯하여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동 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투르케스탄 고려인농업단체의 회장에 최화서, 집행위원에 임운여, 서기에 이용구로 적혀있고 동 문서는 ‘중아시아 타슈켄트 고려인회’ 회장 앞으로 보고된 것이었다.<sup>36)</sup> 정리해 보면 1925년 당시 타슈켄트 지방(오늘날 폴리토젤 영역)에 한인들이 농업조합을 결성하고 벼농사를 비롯한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힘든 재정에도 불구하고 거름준 땅에서 벼를 3.2톤 정도 수확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사실은 1928년의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지역에 ‘카즈리스(Казрис)’ 아르텔<sup>37)</sup>을 결성할 때 극동 지역의 한인인 초청하게 되었는데 이때 카자흐(자치) 공화국만 수용하고 우즈베크 공화국 당국은 한인들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실과 연관된다. 카자흐 당국은 당시 극동 지역의 한인들을 초청하여 크질오르다 지역에 벼농사 재배를 시행했고,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는 이미 농업조합이 결성되어 벼농사를 경영하고 있었던 것이다(Бугай 2014, 110).<sup>38)</sup>

일심 아르텔의 벼농사 재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인력의 충원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심지어 우랄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한인도 있었다.<sup>39)</sup> 스베르들로프(현 예카테린부르크)

35) 1925년의 경작지 면적은 약 9 ha 정도로서 약 27,000평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임차 토지의 약 1/10에 해당한다.

36) 동 문서에 표기된 것을 보면 일심 아르텔의 위치명은 아직은 타슈켄트 주가 아니라 잘랄-튜베 주(Джалал-Тюбинская область)로 되어 있다. 그곳 과거의 명칭이 바로 잘랄-튜베였기 때문이다. 타슈켄트 주(Ташкентская область)는 한인들이 강제이주된 이듬해인 1938년 1월 15일에 설립되었다.

37) 카즈리스 아르텔에 관한 연구 논문은 다음을 참고 (황영삼 2023, 293-320).

38) 부가이 박사는 1929년에 220명의 한인이 극동으로부터 초청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3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고. (Авдашкин А. В. и др. 2021). 66쪽을 보면 강시진(Кан Си Тин)과 안태도(Ан Т а д о)의 실명이 등장한다. 특히 안태도는 이주하면서 티푸스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타슈켄트에서는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었다. 회복후인 1927년 12월에 스베르들로프 북쪽의 니즈니-타길(Нижний Тагил)에서 지방법원의 서기로 일했다. 동 저서는 스베르들로프 주 지방기록원(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органов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ГААОСО)의 문서를 이용하여 현 지역에

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 일부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지역의 농업 아르텔에 참가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지만 농업인구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주가 행해졌다.

〈그림 1〉 사표르나야(점선으로 남북방향 표시

쿠냐예프 거리로 명칭 변화후 현 미라바드 거리), 일심(옥차브리, 폴리토젤 콜호즈)의 대략적 위치(우즈베키스탄 독립직후 두스틀릭 농장으로 개명, 최근 황만금 마할라로 지정됨)



배경지도 출처: <https://www.openstreetmap.org/#map=13/41.2810/69.3072>

기록에 의하면 초기 일심 아르텔의 회원, 즉 농업인들은 13가구로 시작했고 점차 해가 거듭될수록 그 인원은 증가해 나갔다. 그런데 1920년 말이 되면 소련의 농업정책이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은 종전의 영농형태를 완전히 집단화하는 것이었다. 곧 콜호즈(집단농장)와 습호즈(국영농장) 체제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모국을 상실한 채 소련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에게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 일심의 위치와 사표르나야 거리에 대해 위 그림으로 정리했는데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일심이 위치한 지역은 1920-30년대 하더라도 미개척지였다.

관한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것으로서 우랄 지역의 한인사를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 2. 조직의 변화: 옥차브리 및 폴리토젤 콜호즈

1931년 몇 개의 농업조합이 모여 하나의 콜호즈가 결성되었는데 이름은 ‘옥차브리(Октябрь: 10월)’였다. 척박한 땅이 농사에 적합한 농지로 변화하면서 이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규모 또한 처음보다 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하고 특히 주변 늪지대였던 양기바자르(Янги-базар) 지역까지도 편입시켰다. 옥차브리 콜호즈는 벼파종지를 40 ha를 확보하게 되었고 인접지는 갈대밭, 늪지대, 소택지로 되어 있었다(김 브루트 외 2015, 36). 이와 같이 ‘일심’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새로운 콜호즈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심 아르텔의 존재는 잘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옥차브리 콜호즈는 일심보다 면적이 넓었지만 여전히 지리적 환경은 척박한 곳이 많았고, 사람들이 거주할 주택 또한 여건이 미비한 관계로 토굴집이나 유르타(유목민들의 천막집) 등이 설치될 정도였다. 늪지는 메우고 덩굴을 제거하는 한편 수로 또한 확보하는 등이 모든 일이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김 브루트 외 2015, 36).

1931년에 치르치 강 지역을 담당하는 기계트랙터센터(МТС: Машинно-тракторная станция)<sup>40)</sup>가 조직되었는데 그 결과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0월 혁명 참여자 등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당원 25,000여 명이 이 지역으로 파견된 것으로 황만금 회장은 회고하고 있다(김 브루트 외 2015, 36).<sup>41)</sup>

옥차브리 콜호즈는 1933년에 기계트랙터센터의 정치부원들을 기념하면서 이름을 ‘폴리토젤(Политотдел)’로 바꾸었다.<sup>42)</sup> 일심은 결국 옥차브리 콜호즈로 재편되고 마침내 폴리토젤 콜호즈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도부는 최순유(Цой Сун Ю), 최 모이세이(Цой Моисей), 김 블라디미르 표도르비치(Ким Владимир Фёдорович), 권 티모페이(Квон Тимофей) 등으로 구성되었다.

폴리토젤 콜호즈의 토대는 일심 아르텔이었고 1930년대부터는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생산성 또한 높게 되었다. 한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우즈베크인, 러시아인 등도 같이

40) 기계트랙터센터는 농업집단화 정책과 함께 등장했는데 콜호즈와 슝호즈에 트랙터 및 농사장비 등을 대여하고 수선하는 일을 전담했기 때문에 농업생산성 향상에 절대적인 존재였다. 1개의 엠페에스(МТС)는 몇 개의 콜호즈와 슝호즈를 담당했다. 그리고 기계트랙터센터에는 행정과 주요 정책의 결정 등을 담당하는 정치부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폴리토젤’이며 농촌 지방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부서로 성장했다.

41) 기계트랙터센터의 작업조 중에는 김거중, 안강철, 박영표 등의 한인들도 포함되었다.

42) <https://ok.ru/koreanok/topic/62568580595751> (검색일: 2023.12.20.)

구성되어 있던 다민족 콜호즈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태로 1937년 소위 한인들의 강제이주로 인한 다수의 한인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별도의 연구로 분석되어야 하는 폴리토젤 콜호즈는 일종의 중앙아시아 이주 2세대 인력에 속하는 황만금이 1953년에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소련 차원의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토대는 1925년에 조직된 ‘일심’ 아르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3)</sup>

## V. 결론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한인들은 1937년 강제이주 사건 이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 근거는 타쉬켄트에서 1924년에 조직된 ‘한인연맹’과 1925년에 조직된 농업 아르텔 ‘일심’에서 찾을 수 있다. 한인들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압도적 다수로 거주하고는 있었지만 1920년대 초반의 경우에 이미 소련 전역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내용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 혁명과 내전 그리고 이후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특히 복잡하게 변화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알 필요가 있다. 소련 한인연맹은 1924년 중반에 다민족 국가 체제하에서 결성된 소수민족인 한인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한인연맹은 전국적으로 1920년대 중반이 되면 25개에 달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했던 투르케스탄 한인연맹(일종의 타쉬켄트 지부)였는데 2년간 지속되었고 조직원은 30여 명에 달했다.

지방 수준의 한인협회로서 투르케스탄 한인연맹은 해당 지역 거주 한인들의 권익옹호와 문화수준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되었고 대표는 의사인 임윤여가 맡았다. 한인연맹의 목적은

---

43) 참고로 점차 폴리토젤 콜호즈의 주 작물은 면화, 케나프, 옥수수 등이었고 벼농사는 비중을 줄여 나갔다. 1980년대 중반 콜호즈의 수입은 1,500~1,600만 루블이었는데 이윤은 600만불 수준이었다. 문화회관, 스타디움 경기장 2개, 백화점, 병원, 학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가무단 ‘청춘’이 있었고, 축구팀 ‘폴리토젤’, 여자 하키팀이 국가 최상위권이였다. 폴리토젤 콜호즈는 타쉬켄트 파흐타코르 축구팀을 소유하고 있었다. 1946년부터 콜호즈 내의 쉬콜라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폴리토젤의 현재 명칭은 1992년에 두스틀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명에 폴리토젤보다는 두스틀릭으로 많이 표기되어 있다. 1990년대 초반 전성기일 때 인구는 약 2만 명이었고, 그중 80%가 고려인이었다. 2019년에 황만금 박물관이 건립되면서 황만금 마할라로 지정되었다.

동포들의 권익보호와 문화수준 향상, 공제기구 설립, 주일 및 야간학교, 클럽 및 도서관 설립, 한국어 신문 잡지 발행,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건설 등으로 명시되었다. 구성원은 투르케스탄 공산당원을 비롯하여 의사, 건널목지기, 철도 역무원, 정원사 등 다양했고 무직자들도 많았지만 스스로 직업을 밝히지 않아 구체적 현황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공산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타쉬켄트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은 자체적으로 영리활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다. 특히 혁명과 내전으로 인한 피폐해진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식량증산을 위한 정책이 중시되었다. 우즈베크인들이 면화 생산에 특화하고 노동을 투입한 반면 그러한 기술이 결여한 한인들은 벼농사 및 채소 재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한인연맹의 회원 중 일부는 이듬해에 본격적인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고 경작지를 찾았다.

1925년 4월 11일 일심 농업조합이 결성된 것은 이러한 투르케스탄 한인연맹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일심 아르텔을 통하여 한인들은 우즈베크 민족과 함께 농업 활동을 개시했던 것이다. 아르텔 임차 농지의 크기는 대략 30만 평에 달하고 거주민은 초기에 13가구에 달했다. 이 규모는 상대적으로 한인들의 거주가 많았던 극동 지역에 비해 작은 규모였지만 한인 거주인구 면에서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일심 아르텔이 조직되었던 농지는 그야말로 강변의 야생상태 그대로였고 한인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의 불모지를 농지로 개척해야만 했던 것으로서 명확한 사명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1931년 몇 개의 농업조합이 모여 하나의 콜호즈가 결성되었는데 이름은 ‘옥차브리’였다. 척박한 땅이 농사에 적합한 농지로 변화하면서 이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규모 또한 처음보다 커지게 되었다.

옥차브리 콜호즈는 일심보다 면적이 넓었지만 여전히 지리적 환경은 척박한 곳이 많았고, 사람들이 거주할 주택 또한 여건이 미비한 관계로 토굴집이나 유르타(유목민들의 천막집) 등이 설치될 정도였다. 늪지는 메우고 덩불을 제거하는 한편 수로 또한 확보하는 등이 모든 일이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옥차브리 콜호즈는 1933년에 기계트랙터센터의 정치부원들을 기념하면서 이름을 ‘폴리토젤’로 바꾸었다. 일심은 결국 옥차브리 콜호즈로 재편되고 마침내 폴리토젤 콜호즈가 등장하게 되었다. 폴리토젤 콜호즈의 근본적 토대는 일심 아르텔이었고 1930년대부터는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생산성 또한 높게 되었다. 한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우즈베크인, 러시아인 등도 같이 구성되어 있던 다민족 콜호즈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태로 1937년

소위 한인들의 강제이주로 인한 다수의 한인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폴리토젤 콜호즈는 다민족 콜호즈였지만 한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53년부터 32년간 회장직을 맡은 황만금의 등장 이후 폴리토젤 콜호즈는 비단 우즈벡 공화국 차원이 아니라 소련 전체적인 차원에서 선진적인 콜호즈로 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폴리토젤 콜호즈 이전에 형성되었던 일심 농업조합은 강제이주 이전에 한인들이 이미 우즈벡 공화국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된다. 결국 1924년에 타슈켄트에서 조직된 한인연맹과 이듬해에 조직된 일심 아르텔의 존재를 볼 때 한인들은 1937년 강제이주 사건 이전에 이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 브루트·김 미하일 저. 성동기 감수. 2015. 황만금 - 올림포스와 골고다를 넘어서. 한울.
- 김 블라지미르 저. 김현택 역. 2000.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사. 경당.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기록관리원 소장 한인 관련 문서]
- 박 보리스·니콜라이 부가이 저. 김광한·이백용 역. 2004.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 심현용. 2013. 러시아한인 민족사회단체의 독립 및 자치운동 -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GARF) 소장 문서군(F. 8356) 자료를 중심으로 본 문헌집. 엠-에드. ГАРФ Ф. 8356, Оп. 1, Д. 36, [Л. 2, 31, 79~79(об.), 80~80(об.)], 125, 133, 142]
- 황영삼. 2023. 한민족 생활공간의 외연 확장과 성격: 1920-30년대 카자흐스탄 ‘카즈리스’ 농업조합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8(1), 293-320.
- 황영삼. 2015. 투르크메니스탄 민족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투르크멘 공화국 체제의 출범 배경과 쟁점 및 의의. 슬라브학보. 30(1), 495-542.
- 황영삼. 2015. 초기 고려인공동체 형성 연구 - 유럽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43, 23-45.
- Авдашкин А. В., Антошин А. А., Каменских М. С., Сунгжае Л., Муסיнова И. А., Смирнов С. В., Санбом С. Тхай В. Д., Фан И. Б., Яковкин Е. Ю. 2021. Русские в Корее и корейцы на Урале: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Екатеринбург.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Бугай Николай. 2014.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еремены, приоритеты, перепектива. Москва.
- Бугай Н. Ф., Сим Хон Ёнг. 2004.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конститутивность, эволюция, признание. Москва.
- Ким Г. Н., И. А. Ким. 2020. Историк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корейцев СССР и СНГ. Алматы. Қазақ университеті.
- Ким П. 1993. Корейцы ру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он.

- Сон Ж. Г. 2014. Советск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от добровольной д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играции (1920-1938) [ <https://publications.hse.ru/pubs/share/folder/7vcfрqec1a/69707370.pdf>](검색일: 2023.12.20.)
- Хан Валерий Сергеевич. 2021. Историография корейце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и этапы развития. –Ташкент: Baktria press. [ <https://www.academia.edu/65933600/>] (검색일: 2023.12.20.)
- Хан В. С., Сим Хон Ёнг. 2014. Корейц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Москва МБА.
- Хван Ман Гым. 1977. Колхоз Политотдел. Москва.
- Хван Ман Гым. 1962. Трудом, и только трудом. Москва.
- Хван Ман Гым. 1961. Колхоз шагает в коммунизм 《Политотдел》. Ташкент.
- <https://ok.ru/koreanok/topic/62568580595751> (검색일: 2023.12.20.)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273> (검색일: 2024.01.10.)

● 투고일: 2024.1.15. ● 심사일: 2024.02.05. ● 게재확정일: 2024.02.08.

## | Abstract |

### **Exterior Expansion and Characteristics of Ethnic Korean Living Space**

- **focused on the Uzbek Korean Organizations in the 1920s-1930s**

Hwang Youngsar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ns were living in Central Asia even before the '1937 deportation'. The real foundation for this assertion can be found in 'the Union of the Turkestan Koreans' organized in 1924 in Tashkent and the agricultural *artel* '*Ilsim*' organized in 1925. Although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Soviet Koreans lived in the Russian Far East, it is not well known that they already resided in major cities throughout the Soviet Union in the early 1920s. The Union of Koreans lasted for two years and had about 30 members. As a local-level Soviet Korean organization, the Union of Turkestan Koreans worked to protect the rights and develop the cultural level of Koreans living in the region, and one of its activities was the formation of an agricultural *artel* (cooperative). In other words, '*Ilsim*' was an economic community organized by ethnic Koreans living in the Tashkent region. Afterwards, in 1931, several agricultural cooperatives gathered together to form a *kolkhoz* named 'Okchavri(October)'. '*Okchavri*' Kolkhoz changed its name to '*Politotzel*' in 1933 in memory of the political members of the Machine Tractor Station. In this situation, we faced a large number of Koreans due to the so-called forced migration of Koreans in 1937. Ultimately, in view of the existence of The Union of Turkestan Koreans organized in Tashkent in 1924 and '*Ilsim*' *artel* organized the following year, we can conclude that Koreans had already established a living space in Central Asia before 'the 1937 Deportation'.

<Key words> *Ilsim*, Union of Soviet Koreans, *Politotzel*, Uzbekistan, Hwang Man-Geum